

조각그림 맞추는 이야기 놀이책

갈리마르 출판사의 퍼즐 북 시리즈

장익순
출판기획가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는 연원도 오래 되었을 뿐더러, 뛰어난 기획물들을 출판해 온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펴낸 것들을 접할 때마다, 나는 책이란 문화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최상의 그릇임을 새삼 느끼곤 한다. 그만큼 갈리마르의 책들은, 전문성과 대중성의 두 축이 만나는 지점에서 문화의 각 요소들을 독특한 기획 심미안으로 포획해내고 있다.

갈리마르 출판사가 1994년에 어린이 책 분야로 출판한 퍼즐 북 시리즈 또한 이러한 특성을 잘 구현하고 있다. 어린이의 인성과 지능을 발달시키는 데 아주 좋은 조각그림 맞추기 놀이를 새로운 형식과 아이디어로 수용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퍼즐 북 시리즈는 모두 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신데렐라와 두 하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용과 구조를 잘 이해시키는 일.

▲ 아이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같이 놀며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 이야기의 기본 모티브를 잘 이해하고 그 모티브를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둘째, 기본 수단은 조각그림 놀이 형식을 차용하는 일.

▲ 이야기를 12장면으로 나누어 12개의 그림 카드로 만들기.

▲ 연극 무대적인 기법을 수용하여 일련의 카드가 한 무대로 설정될 수 있게 하기.

▲ 정교한 그림이 아닌, 자유로운 이야기 구성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연극 연출 기법에 알맞는 유화 그림 그리기.

셋째, 이야기 창작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이야기를 변환시키는 일.

못된 두 언니와 착한 신데렐라 이야기를 조각그림으로 맞추면서 이야기의 내용과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일련의 카드는 하나의 무대로 설정해 연극연출기법도 자연스럽게 익힌다.



카드 이야기의 모티브를 이용하여, 이야기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넷째, 이야기 모티브를 변환시키는 교육적 놀이기구를 시리즈화하는 일

▲ 기존의 동화를 시리즈로 한다.

▲ 모티브를 변환시킨 새로운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 낸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시리즈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그리고 흑기사와 일곱 거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리고 냄새나는 발의 미녀, 장화신은 고양이 그리고 바지를 입은 고양이, 예쁜 빨간 모자 그리고 예쁜 초록 모자, 신데렐라 그리고 두 하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각그림 맞추기, 퍼즐 놀이는 한 이야기 단위를 가장 효율적으로 의미 있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갈리마르의 퍼즐 북은 여기에 연극적인 요소와 무대미술적인 요소를 더한 데다가 이야기를 변용할 수 있는 요소까지 엮고 있어서, 이야기 놀이책의 정수를 보여준다. 단순한 아이디어 같지만 생각해보수록 교육적인 전문성과 애정이 만들어낸 것임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에게 구전돼온 구수한 전통 이야기들을 이처럼 잘 기획해 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



이 퍼즐 북은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① 가로 11cm×세로 15cm의 조각그림 카드 12장-카드마다 앞뒷면에 다른 그림이 있다.

② 똑같은 크기의 8쪽 짜리 조각그림 내용 설명서-4쪽 짜리 이야기 두개가 거꾸로 인쇄되어 있다.

③ 카드 12장과 설명서를 담은 플라스틱 틀 및 틀을 지지하고 뚜껑 기능도 하는 두꺼운 겉표지

결국 14.5cm×18.8cm의 책 모양을 하고 있다.

퍼즐 북의 기획 아이디어를 분석해 보자. 첫째, 기본 목표는 아이에게 이야기의 내

▲ 반구상화된 조각그림을 다르게 맞추는 채로 설명하려 하면 다른 이야기로 된다.

▲ 조각그림을 이리저리 짜맞추다 보면 제대로 구성된 장면들만이 확실한 이야기 구조를 갖게 됨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

▲ 같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변형시켜 본다.

처음 신데렐라 이야기가 못된 두 언니와 착한 한 소녀 사이의 이야기라면, 새로이 창작된 신데렐라 이야기는 못된 한 언니와 착한 두 동생 사이의 이야기이다.

그렇게 되면 두명의 신데렐라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두 왕자가 제각기 한쪽씩의 신발을 들고 착한 두 동생을 찾아온다.

(이처럼 뒷 카드의 일련의 이야기는 앞

카드의 뒷그림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못된 한 언니와 착한 두 동생 사이의 이야기로 새롭게 변형된 모티브는 아이들의 창작능력과 상상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

